



주식회사 이호 유상만 대표이사, 제11대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3월 28일 이·취임식 개최

서산상공회의소 제11대 신임회장에 ㈜이호 유상만 대표이사가 당선되었다.

서산상공회의소는 3월 12일 서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11대 의원(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유상만 ㈜이호 대표이사를 서산상공회의소 제11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였다.



또한 3월 28일 제9~10대·제11대 회장이취임식을 가졌으며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상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과 기대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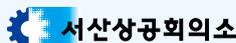
응하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정신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고, 모든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받침돌의 역할을 하는 서산상공회의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 제11대 회장 유상만 기업 순회 방문

서산상공회의소 유상만 회장은 3월 14일 취임하고 신임인사차 회원사를 방문하여 경제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KCC,

KCI, SK온 등 회원사를 방문하였다. 유상만 회장은 회원업체를 방문하여 기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주소_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전화_663-3063 / 팩스_663-3065
홈페이지_sscci.korcham.net

“
지역은 기업사랑
기업은 지역사회
”

상공회의소 소식지로 회원기업과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필요로 하시는 회원기업은 상공회의소에 알려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교육 실시

서산상공회의소(회장 유상만)는 2024년 확대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3월 14일 서산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서산·태안 관내 기업체 30여곳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련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강사로 나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팀에



양일준 근로감독관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체는 4월 17일 추가교육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서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지역 지식재산사업 1분기 접수 현황리 마감

IP기반해외진출, IP바로지원(1차), IP나래(1차 접수) 마감
충남서부 6개 시·군 다양한 중소기업 참여

지난 3월 20일, 충남서부 지식재산센터는 지역지식재산사업 1분기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1분기 접수 마감된 사업은 수출기업의 IP(지

식재산) 전반을 지원하는 ‘IP기반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강력한 특허창출과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지식재

산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는 ‘IP바로지원사업’이다.

이번 사업 접수는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보령, 홍성, 서천) 지역 소재 축산, 미용, 금속, 기계, 수산물, IC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신청서를 낸 중소기업들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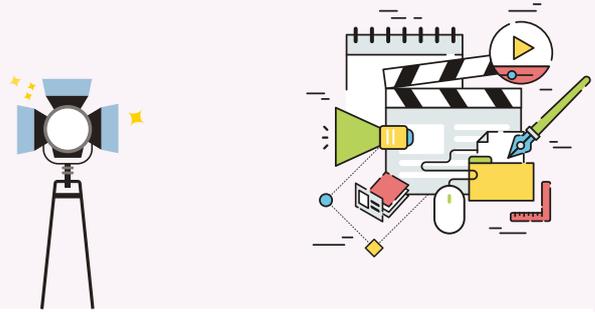
지역지식재산 사업 중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접수가 완료됐으나, IP나래 및 IP바로지원 사업은 2분기에 2차 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IP역량강화(상표 출원) 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가능하다.

4월 창립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업체명	창립기념일	업체명	창립기념일
한국서부발전(주)	4월 2일	(주)시공종합건설	4월 18일
제우스렌탈	4월 7일	(주)아이티에스	4월 19일
성신에스티에이(주)	4월 10일	태강건설	4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4월 12일		

※ 창립일이 다른 경우 상공회의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041-663-3063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IP바로지원 사업



서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는 'IP(지식재산)바로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바로 지원하여 해결한다.'라는 특허청의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IP바로지원 사업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의 10개 세부사업으로 세분되어 기업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 알아볼 사업은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오랜 시간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탄생한 지역 중소기업의 문서화 된 특허기술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특허기술의 이해도 증진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허기술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3D 모델링 및 동영상 제작,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사진 및 영상 촬영, 기업 이미지와 제품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촬영, 기업과 협의에 의

해 기존 영상물을 활용한 편집, 전문 오디오 디렉터를 활용한 내레이션 내용 녹음 및 각 페이지에 배경 효과음 삽입 등 다양한 영상 기법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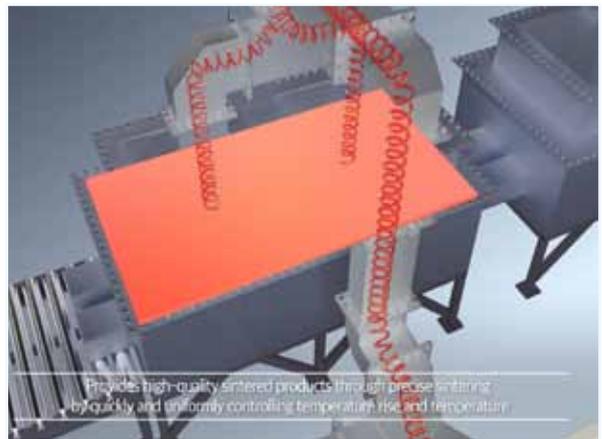
또한, 5분 이내의 런닝타임, 16:9의 화면 비율과 HD 이상의 해상도로 제작되고, 내레이션 및 자막은 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하에 외국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영상 제작 시 사용하는 관련 자료는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통해 현저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인 ㈜세지테크는 수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래의 문 제점인 발열 효율이 낮고 온도의 균일도 저하와 낮은 온도 상승속도를 개선한 마이크로파 가열로 개발 성공과 동시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영상 제작에 앞서 ㈜세지테크의 특허 제10-2126152호(명칭 : 마이크로파 가열로)를 분석한 결과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컴팩트하면서 제작이 용이하고, 발열 특성이



[특허기술 홍보영상 스토리보드]



[특허기술 홍보영상]

우수하면서도 충분한 단열 성능을 발휘하여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특징점을 영상화하였다. 또한, 해외 전시회 등의 참가가 다수 예정되어 있는바 내레이션과 자막을 국문과 더불어 영문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900만원 내외로 지원되며, 기업의 현금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300만원 내외)다. 단,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자부담금 10% 감면 혜택이 있어 150만원 내외로 현금자부담금이 경감된다.

대한상의 보도자료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 대법원 결정 앞뒹...기업들 대비해야

대한상의,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주목해야 할 3대 노동판결 △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인정 여부 △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올해 대법원 선고예정인 노동사건 중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

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노동사건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3대 노동판결 중에 가장 빨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 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 법리가 정착된 듯 보였으나 최근 이를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5년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는 B사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며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최초로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노동사건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즉,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노동사건의 핵심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즉,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정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하청노조간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택배노조 사건과 달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돼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 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온라인 유통 지원 위해 '디지털혁신 팀' 신설

향후 '온라인 유통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할 예정

대한상의는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물류진흥원 내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하였다.

지난 2월에 신설된 디지털혁신팀은 우선 온라인 유통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개별 관리하던 상품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품정보 경쟁

력을 높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추후 디지털혁신팀을 '온라인 유통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부 및 관계부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유통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EGS경영 실천에서 해법 찾아야

대한상의, 19일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포럼' 개최...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양은영 KOTRA 실장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6년 본격 시행...기업 생산시설·공정 전면 점검해야"
박재흠 EY한영 전무 "EU 배터리법 대비,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장윤제 세종 ESG연구소장 "공급망 실사 경영간섭 이슈...계약시 사전협의·적법한 실사체계로 해결"

ESG가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양은영 KOTRA 실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또한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일반 참가자들도 500여명 가량 참석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6년 본격 시행...기업 생산시설·공정 전면 점검해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에 대해 발

제를 맡은 양은영 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가 작년 10월부터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이나,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작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실장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전환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겠다고 했다"며,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EU 新 배터리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에 나선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유럽연합의 新 배터리법은 자원순환·안전보장·투명성을 추진,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ERP(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추적성 제고' 그리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실사 및 제3자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며, "배터리 제품의 탄소/자원 집약적인 측면의 강화와 투명한 제조역량 측면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무는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측면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급망 실사 경영간섭 이슈...계약시 사전협의·적법한 실사체계로 해결

마지막 발표는 'EU 공급망 실사법 및 ESG 공

시 규제 동향'을 주제로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이 맡았다. 장 소장은“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벨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다”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절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 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

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컨퍼런스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점차 제도화·규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수출규제들을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한상의 '제51회 상공의 날' ...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등 1,200명 참석한 가운데 행사진행 서산상공회의소 회원사 광성강관공업 박태섭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영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오후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갖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12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포상 규모가 전년대비 10점 증가해 한국경

제를 이끌어온 상공인들의 자부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상공인 등 총 1,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역인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격려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산상공회의소 회원사중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으로 광성강관공업(주) 박태섭 대표이

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상만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수상을 축하드리며, 서산상의도 상공인 관점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으로 서산시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서산시는 지난 6일 시장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와 '서산시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적립기금은 총 1억 820만 4450원원으로 지난해 1년간 NH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적립한 금액이다.

시는 전달 받은 적립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매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휴카드 기금을 적립해 준 NH농협 서산시지부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전달된 기금은 서산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



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는 2005년부터 서산시정과 협약한 제휴카드 포인

트를 적립해 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약 10억 6천800만 원에 이른다.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추진

서산시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면접지원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적극 추진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지역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1:1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 14일 충남도, 서산시와 공장 이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확장 이전을 준비 중

인(주)인크테크가 실시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됐으며, 시는 (주)인크테크의 공장이 완공되고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매주 1회씩 진행할 계획이다.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지역민 채용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일



자리종합센터(☎041-660-2741)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임에도 기회가 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상생해 취업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사랑의 쌀 4200포 기탁

한화토탈에너지스(주)가 서산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4200포(1억 원 상당)를 충남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 18일 대신읍 소재 명지정미소에서 민병도 한화토탈에너지스(주) 상무, 윤여신 대신읍장, 김기근 대신읍시장단협의회장, 유병설 충남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한 쌀은 대신읍,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가족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새터민 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병도 상무는 "지역민과 상생하는 사회공헌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들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과 지역 상생을 위해 힘쓰는 모범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농협 서산시지부, 서산시에 책가방 200세트 전달

농협 서산시지부(지부장 송연광)는 12일 서산시를 방문하여 농촌지역 교육여건 향상을 학습용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책가방 세트는 200개로 지역 영세농업인과 취약계층,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농촌지역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농협 서산시지부와 관내 지역농협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가방 세트는 책가방, 보조 가방, 스트링 파우치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송연광 지부장은 "미래 세

대를 이끌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의 미래이자 농촌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에 서산시도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이완섭 시장과 송연광 지부장을 비롯해 김기근 대신농협조합장, 박상순 성연농협조합장, 김기연 해미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중처법 이제 진짜 대비 해야할 때

⑤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중처법의 보호 대상은 '종사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서 한 단계 더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처법 제5조에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인력 도급 등을 통해 수급인 소속 종사자들이 종사하게 되는 경우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

하면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보상은 별개로 하더라도 도급인 입장에서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는 또 다른 재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중처법에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위탁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시설, 장

비 등에 대한 지배·관리하는 경우 수급인 소속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게 된다. 중처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중처법의 전면 적용 이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도급 등의 계약체결 조건으로 중처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교육 개최 안내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산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4월 17일 14:00
- **장 소** : 서산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3층) -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4층
- **강 사**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양일준 근로감독관
- **내 용** : ①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및 사업장 실태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해설 및 대응 방안
③ 질의 응답

■ **참석문의** : 서산상공회의소 업무혁신팀 (☎ 041-663-3063 / 041-663-3065)
(e-mail : ffgg2811@korcham.net)